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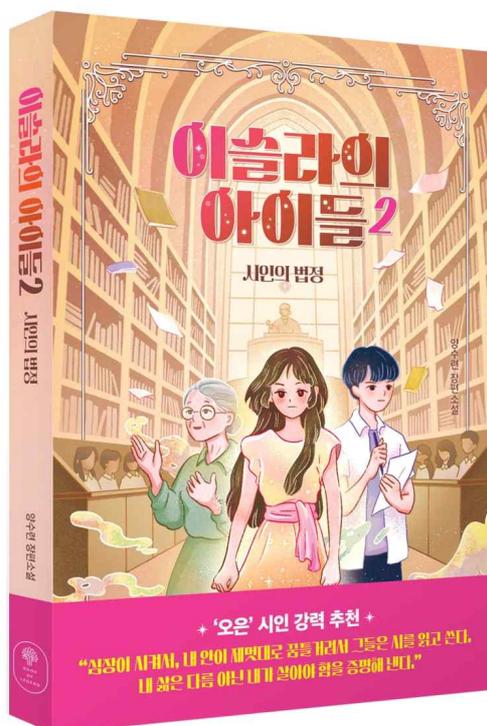
한 학기 한 권 읽기

학생용

『이슬라의 아이들 2』

시인의 법정

독서 지도안



작성 | 권유정(서울 자운고등학교 사서교사)

이 독서지도안은 책이라는신화 블로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chaegira_22



책 소개

“제 인생의 장애물을 뛰어넘는 방법을 찾고 있어요.”

시가 금지시된 이슬라. 그러나 학교에서 시가 적힌 쪽지가 발견되고, 아루가 범인으로 지목되며 퇴학당할 위기에 처한다. 그런 아루를 위해 야니는 이슬라로 향하고, 마침내 법정에서 서게 되는데…….

지금, 무지갯빛 오로라가 넘실대는 치열한 법정 공방이 펼쳐진다!

마음에서 길어 올린 수많은 감각의 조각으로
나만의 시를 꽃피우는 경이로운 시간



소설을 읽기 전에 생각해 보아요

야니가 바다로 돌아간 뒤, 이슬라 학교에서는 시 한 구절로 인해 모든 것이 뒤흔들립니다. 그 시로 인해 아루가 곤경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은 야니는 망설임 없이 다시 이슬라로 향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벽한 섬의 평온한 일상 아래 감춰져 있던, 어른들이 숨겨 온 이슬라와 오션맨, 그리고 이슬라 역사의 진실이 드러납니다.

시는 오션맨에게는 영혼과도 같지만, 이슬라에서는 금지된 것입니다. 야니는 아루를 구하고, 잃어버린 시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법정에서 싸웁니다. 과연 이슬라의 하늘 아래 다시금 시가 울려 퍼질 수 있을까요? 『이슬라의 아이들 2: 시인의 법정』은 아루와 야니, 그리고 아이들이 이슬라가 잃어버린 ‘시’를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이들과 함께 생각해 봅시다.

“나의 목소리가 세상에 닿는 순간, 무엇이 바뀔 수 있을까?”

독서 계획

차시	단계	활동 내용	쪽수
1	독서 전	이슬라 입도 준비: 표지로 미리 만나는 세계	4
2	독서 중·후	이슬라와 오션맨, 관계로 이어지는 세계: 인물 정리하기	5
3		시와 함께 사건을 기록하다: 사건 정리하기	6
4	독서 후	독서 질문으로 확장하며 책 읽기	7
5		시인의 법정	11

1차시 독서 전 활동 - 이슬라 입도 준비: 표지로 미리 만나는 세계

여러분이 읽게 될 책 『이슬라의 아이들 2: 시인의 법정』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요? 본격적으로 책을 읽기 전에 앞표지와 뒤표지, 서문을 살펴보고, 아래의 질문에 대한 자기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서문

*
○

땅에서 서로 만난 빗물이 시냇물을 이루고,
 시냇물은 서로 만나 강물을 이루고,
 강물은 서로 만나서 바다로 향하네니
 바다는 강물과 시냇물과 물방울이
 서로 만나 이루는 거대한 세계다.

독서 전 질문	내 생각 정리하기	독서 후 질문	내 생각 정리하기
표지 그림에는 어떤 장면과 분위기가 담겨 있나요?		→ 실제 내용과 비교했을 때 일치했나요? 다르게 느껴졌나요?	
『이슬라의 아이들 2』의 부제는 '시인의 법정'입니다. 어떤 내용이 펼쳐지게 될지 상상해 보세요.		→ 『이슬라의 아이들 2 : '시인의 법정』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요약해 봅시다.	
서문은 각 도서의 내용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문의 주제어를 선정하고, 중요 주제어를 선택해 보세요.		→ 책을 읽고 난 뒤, 서문을 다시 살펴보고 서문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적어 봅시다.	
저자는 왜 '바다'를 '완벽한 세계'의 상징으로 선택했을까요?		→ 이야기를 다 읽고 난 지금, 바다는 어떤 세계를 상징한다고 생각하나요?	

2차시 독서 중·후 활동 - 이슬라와 오션맨 관계로 이어지는 세계 인물 정리하기

『이슬라의 아이들』에는 섬에서 살아가는 이슬라인들과 바다에서 살아가는 오션맨이 등장합니다. 겉보기에는 서로 다른 공간에 속해 있지만, 두 집단은 생각보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대립하며, 각자의 신념과 감정이 얽혀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를 만들어 냅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이슬라의 사람들과 오션맨 사이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정리해 봅시다. 등장인물들이 어떤 인연으로 이어져 있는지,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 그림으로 정리해 보세요.



**섬에 사는
이슬라인**



**바다에 사는
오션맨**

3차시 독서 중·후 활동 - 시와 함께 사건을 기록하다: 사건 정리하기

『이슬라의 아이들 2: 시인의 법정』에서 야니와 로인이 남긴 ‘시’는 단순한 문학 작품이 아니라, 그들이 품은 감정과 생각, 그리고 이슬라의 세계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짧은 시 문장 속에 인물의 삶과 고통, 그리고 변화의 흔적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이슬라의 아이들 2: 시인의 법정』 본문에 나오는 ‘시’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글귀를 직접 필사하고, 그 시가 등장하는 장면이나 관련된 사건을 함께 정리해 봅시다. 단순히 아름다운 문장을 베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장이 어떤 상황에서 쓰였는지, 인물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정리하기> 활동 방법

- ① 『이슬라의 아이들 2: 시인의 법정』에서 마음에 남은 시 한 구절을 고릅니다.
- ② 그 글귀를 활동지에 정성껏 필사하고, 선택한 이유를 한두 문장으로 적습니다.
- ③ 해당 시와 관련된 인물, 사건, 배경을 정리해, 그 시가 이야기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생각해 봅시다.
- ④ 활동이 끝난 뒤에는 친구들과 서로의 글귀를 공유하고, 시가 등장한 시간 순서대로 배열해 보세요.

시 구절 필사하기	
이 구절이 가장 마음에 남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건 정리하기	
인물	
사건	
배경	

4차시 독서 후 활동 - 독서 질문으로 확장하며 책 읽기

1. 배에서 다시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던 야니는 왜 이슬라로 가야겠다고 차르에게 말했을까요?

2. 아루는 야니의 문장을 읽고 난 뒤부터 '진짜 나 같다'면서 좋아했습니다. 해당 부분의 발췌 글을 읽고 아래의 질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어 보세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은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냐. 중요한 건 네 문장을 읽을 때마다 내 안의 뭔가가 불끈거린다는 사실이지. 어떤 생명체가 내 안에 있어서 막 꿈틀거리는 것 같다고나 할까. 네 문장을 만나기 전의 나는 완전 가짜였어.”

“그땐 뭐, 네가 아니었던 소리야?”

“그런 건 아니지만, 이슬라기념관에 있는 그 밀랍 인형 같았지. 지금은 내가 진짜 나 같아서 좋아.”

『이슬라의 아이들 2: 시인의 법정』 본문 중에서

① 야니의 문장을 읽은 아루는 왜 자신이 '가짜 같다'고 표현했을까요?

② '진짜 나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은 언제 '진짜 나'라고 느낀 적이 있나요?

3. 야니의 '오로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래의 발췌문을 읽고, 그 의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오션맨들은 차르가 야니를 너무 받아 준다고 야단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야니의 오로라가 비칠 때면 차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야니의 감정을, 오로라를 그저 지켜볼 뿐이었다.

이로 교장은 야니의 오로라를 보지 못했다. 야니의 마음에 공감했다면 오로라의 기운을 감지했을 거였다. 그렇더라도 이로 교장은 눈에 이상이 생겼다면 병원을 찾았을지 몰랐다. 바다에서 살아온 오션맨에 비해 이슬라의 기성세대는 감정이 메말랐다.

야니의 기분이 좋을 때는 오로라의 색도 밝았다. 지금처럼 어두운 오로라는 야니가 자신의 감정을 좀처럼 꺼안지 못한 때에 불안의 징조로 나타났다. 차르는 아루를 생각하는 야니의 마음을 오로라의 색으로 충분히 가늠했다.

오션맨들은, 야니의 오로라에 관해 차르가 말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야니한테 콩깍지가 단단히 씌었다고 여겼다. 남들은 보지 못하는 야니의 오로라 때문만은 아니었다. 선실에 혼자 있는 갓난아기를 발견한 그때부터다. 차르는 야니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안 들어주고는 못 배겼다. 바다의 오아시스호에서 야니에게 안 되는 일은 없었다. 할 수 없는 것도 없었다.

『이슬라의 아이들 2: 시인의 법정』 본문 중에서

① 야니의 '오로라'는 무엇인가요?

② 차르는 왜 야니의 오로라를 볼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까요?

③ 교장과 다른 오션맨들은 왜 야니의 오로라를 볼 수 없는 것일까요?

④ 이슬라인들이 오션맨에 비해서 공감 능력이 약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4. 학교 징계로 퇴학당하게 된 아루는 억울하면서도 흥가분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5. 웨이의 엄마는 웨이가 '우아한 분노'를 알게 될까 봐 걱정했다고 합니다. 아래의 발췌문을 읽고, 질문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엄마는 우아한 분노를 웨이가 알게 될까 봐 걱정이라. 언니, 근데 우아한 분노가 뭐야?”

야니가 엉뚱한 질문을 해도 차르는 허투루 넘기는 법이 없었다.

야니도 할 수만 있다면 웨이에게 그런 언니이고 싶었다. 어떻게 설명해 줘야 할지 몰랐다. 잠시 고민하다가 말문을 열었다.

“웨이는 화난 바다를 본 적 있어?”

“응. 이따만 한 배를 바다가 한입에 앙, 삼켰다가 토했어. 웨이가 먹으려고 앙, 깨문 비스킷처럼 배가 갈라졌어.”

웨이의 얼굴엔 당시의 놀라움과 공포가 그대로 담겨 있었다.

“진짜 무서웠겠다. 우아한 분노라는 건 말이야. 저기 바다 보이지? 지금은 잔잔하니 평화롭잖아. 꼭 이슬라의 아이들 같지. 물고기도 내주고, 수영도 할 수 있게 해 주고, 배도 무사히 다닐 수 있게 해 주잖아. 근데 바다가 화나면 사람들은 무서워서 바다의 신령에게 엎드려 청하지. 노여움을 풀어 달라고 말이야. 근데, 산은? 웨이는 산이 바다처럼 화내는 걸 본 적이 있을까?”

“없는데…….”

“엄마는 우아한 분노를 웨이가 알게 될까 봐 걱정이라. 언니, 근데 우아한 분노가 뭐야?”

야니가 엉뚱한 질문을 해도 차르는 허투루 넘기는 법이 없었다.

야니도 할 수만 있다면 웨이에게 그런 언니이고 싶었다. 어떻게 설명해 줘야 할지 몰랐다. 잠시 고민하다가

말문을 열었다.

“웨이는 화난 바다를 본 적 있어?”

“응. 이따만 한 배를 바다가 한입에 앙, 삼켰다가 토했어. 웨이가 먹으려고 앙, 깨문 비스킷처럼 배가 갈라졌어.”

웨이의 얼굴엔 당시의 놀라움과 공포가 그대로 담겨 있었다.

“진짜 무서웠겠다. 우아한 분노라는 건 말이야. 저기 바다 보이지? 지금은 잔잔하니 평화롭잖아. 꼭 이슬라의 아이들 같지. 물고기도 내주고, 수영도 할 수 있게 해 주고, 배도 무사히 다닐 수 있게 해 주잖아. 근데 바다가 화나면 사람들은 무서워서 바다의 신령에게 엎드려 청하지. 노여움을 풀어 달라고 말이야. 근데, 산은? 웨이는 산이 바다처럼 화내는 걸 본 적이 있을까?”

“없는데.....”

웨이는 도리질하듯 고개를 흔들었다.

“실은 언니도 본 적 없어. 산은 좀처럼 화낼 줄 모르거든. 아무리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산에 있는 것들을 다 가져가도 산은 아마 화내지 않을걸? 그렇다고 산을 만만히 보면 큰일 나. 산에 들어갔다가 그 안에서 길을 잃거나 조난되거나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있거든. 우아한 분노란 건 그런 게 아닐까. 사람들이 자기 잘못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거 말이야.”

“알 것 같아. 저기 있는 언니의 문장지 같은 거야. 자꾸 고개 숙여 보게 만들잖아.”

“실은 언니도 없어. 산은 좀처럼 화를 낼 줄 모르거든. 아무리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산에 있는 것들을 다 가져가도 산은 아마 화를 내지 않을걸. 그렇다고 산을 만만히 보면 큰일 나. 산에 들어갔다가 그 안에서 길을 잃거나 조난되거나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있거든. 우아한 분노란 건 그런 거 아닐까. 사람들이 자기 잘못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거 말이야.”

“알겠어. 저기 바닥에 있는 언니의 문장지 같은 거야. 자꾸 고개 숙여 보게 만들잖아.”

『이슬라의 아이들 2: 시인의 법정』 본문 중에서

① 산과 바다를 비교해 보세요.

산	바다

② ‘우아한 분노’란 무엇인가요?

③ 웨이의 엄마는 왜 우아한 분노를 알게 될까 봐 두렵다고 한 것일까요?

6. 이지는 왜 야니에게 소송하는 방법을 알려 주었을까요?

7. 법정에서 로인의 시를 듣고 심정지를 호소한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심정지를 겪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8. 법정에서 시를 듣고 심정지를 겪은 아이들이 야니의 시를 금지해야 한다고 했나요? 아니면 허락해야 한다고 했나요? 왜 그런 반응을 보였나요?

9. 이슬라에서 선물이라 여겨지던 퀘텀백신의 부작용은 무엇이었나요?

10. 카이는 왜 로인의 장례식장에 찾아왔을까요?

예상치 못한 조문객은 밤이 이슬해진 때에 나타났다. 앞서 온 조문객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법정에도 나오지 않던 카이가 로인이 떠난 집에 나타났다. 오션맨을 잡아가려는 건가. 카이의 등장에 야니는 불안했다.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

카이는 로인의 주검 앞에 향을 피우고 묵념했다. 오션맨의 조문을 트집 잡기 위해 온 것이 아니란 것만은 알 듯했다.

“조용히 다녀갈 생각이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이 와 있을 줄은 몰랐네. 내가 조문객들을 다 쫓아 버린 것 같군.”

카이는 수호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하고는 곧바로 책방을 나섰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수행원들이 카이의 뒤로 따라붙었다.

『이슬라의 아이들 2: 시인의 법정』 본문 중에서

A large rectangular area with a solid top and bottom border and 20 horizontal dashed lines inside, resembling a writing template. The dashed lines are evenly spaced and extend across the width of the rectangle.